

# 비디오테이프 미스터리

함께 푸는 미스터리 Ⅳ

저명한 범죄학전문가인 최효교수가 그의 친구인 김만금씨 부부의 초대로 주말을 서울근교에 있는 그들의 별장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이웃 별장에서 엄청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일 아침 경찰지청의 유강력경감이 김만금씨 별장으로 최교수를 찾아와 김만금씨의 친구이자 이웃인 천금석씨가 죽었는데 살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시관의 의견에 따르면 그가 죽은 것은 샴페인글라스 속에 탄 청산가리가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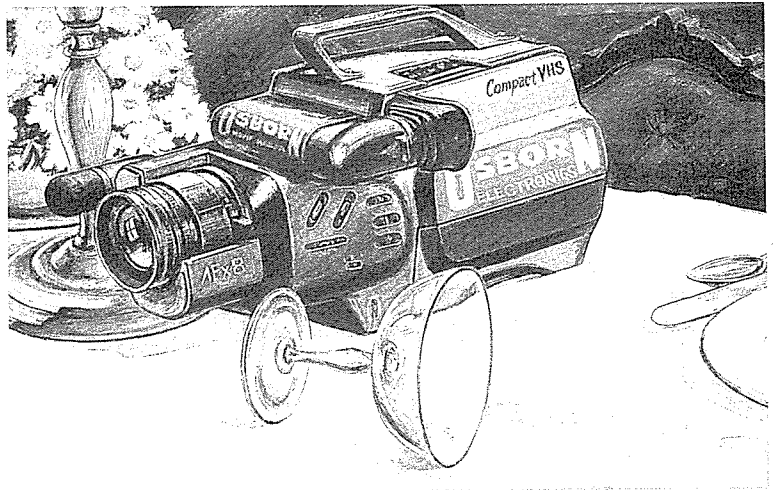
“최교수님께서 살인사건 해결에 명성이 매우 높으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감의 간청에 대해 최교수는 선뜻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으나 “오늘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하셔야겠어요. 내일은 선약 때문에 그쪽 일을 해야하니까요.” 라고 못박는 것이었다.

유경감은 최교수와 함께 이웃 천금석씨 저택으로 가는 차중에서 이 억만장자의 주변에 관해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간추려서 최교수에게 설명했다. 천금석씨는 자수성가한 전자업계의 거물이었고 이름난 전자메이커인 천금석전자회사의 창업자이자 사장이었다. 그는 죽기 바로 전날 출장갔던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는 한 일본전자메이커와 합작관계를 협의했다. 그런데 일본여행에는 젊은 여성 금장미씨를 동반했다. 천금석씨는 이 여성과 올봄에 결혼할 계획이었다.

천금석씨는 올해 나이가 60세, 부인과 사별하여 홀아비가 된지 10년이나 되었다. 그는 세아들을 두었으며 이들은 모두 천금석전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세아들은 부부가 모두 천금석씨가 치명적인 샴페인을 마셨던 오찬에 동석했으나 그의 약혼녀인 금장미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유경감의 설명을 듣고 있던 최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유경감의 생각은 천금석씨의 아들이나 또는 며느리 중의 한사람이 천금석씨를 이 세상에서 몰아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금석씨가 자식들에게 장차 신부가 될 여성을 위해서 유언을 갱신하겠다고 통고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새로운 유언을 만드는 날짜를 내일로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알리바



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알리바이는 최교수님도 이따 보시겠지만 비디오테이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경감이 설명을 더 계속하기 전에 이들을 태운 차는 벌써 천금석씨 별장에 도착했다. 저택에는 경찰들과 천금석씨 가족들로 들어차 있었다. 최교수는 천금석씨의 아들부부들을 소개받았다. 큰아들 천일룡과 그의 부인 이금자, 둘째아들 천일룡과 그의 부인 김은혜 그리고 셋째 아들 천삼룡과 부인 박동숙이었다. 최교수의 눈에는 이들이 모두 알맞게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부친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청산가리가 천금석씨의 술잔에 들어갔는지 또는 누가 집어넣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혹시 단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며느리 이금자씨가 작은

## 최교수가 잡은 증거는 무엇이며 천금석씨 살해범은 누구였는가!

보석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뿐이다. 유경감이나 최교수가 모두 알고 있듯이 청산가리는 이따금 보석을 가공하는 작업에서 사용된다.

“최교수님, 이제부터 이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비디오테이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경감은 최교수를 서재로 안내한 뒤 비디오카세트리코더를 돌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식탁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비쳤다. 테이블 상좌에는 천금석씨가 자리하고 그 왼쪽으로 맏며느리 이금자씨,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 천삼룡씨, 그리고 둘째며느리 김은혜씨가 보이고 그 옆자리는 비어 있으나 아마도 장남인 천일룡씨가 촬영을 마치면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천금석씨 오른쪽으로는 셋째며느리 박동숙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 천이룡씨가 자리하고 있다. 박동숙씨 바로 뒤의 벽에 걸린 대형거울 속에는 카메라를 든 맏아들 천일룡씨의 모습이 보인다.

“최교수님, 다음 장면을 자세히 보아 주십시오. 이때 주방장 오주식씨가 샴페인과 술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유경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교수는 주방장이 커다란 은쟁반을 두손으로 들고 주방문에서 나와 식탁머리 왼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카메라는 오주방장이 각자 앞에 찬 샴페인글라스를 놓고 있을 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클로즈업시켜 보여주었다. 다시 화면에는 셋째 아들 천삼룡씨가 일어서서 맏며느리 이금자씨 뒤에 서 있는 주방장이 건네주는 샴페인병을 받아 아버지 천금석씨 뒤로 돌아가 몸을 굽히며 아버지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을 때 그의 처 박동숙씨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없이 시아버지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술잔을 자기 앞에 갖다놓고 있었다.

다음번 클로즈업 장면은 천삼룡씨가 맏며느리 이금자씨의 술잔에 술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뒤를 돌고 있을 때 셋째며느리 박동숙씨가 시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천삼룡씨는 자기부인 박동숙씨의 술잔을 아버지 앞에 옮겨놓고 술을 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장면

이 계속되면서 천삼룡씨는 자기 술잔에 술을 부은 뒤 둘째며느리 김은혜씨의 술잔, 장남 천일룡씨가 앉을 빈 의자 앞의 술잔, 둘째 아들 천이룡씨의 술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처의 술잔에 차례로 술을 따르는 모습이 비쳤다. 다시 장면은 바뀌면서 3남 천삼룡씨가 빈 샴페인병을 오주방장에게 건네주고 주방장은 식기대쪽으로 돌아섰다.

다음 장면에서는 천금석씨가 술잔을 쳐들고 있었다. 이 장면에 이어 모두 건배하고 있을 때 주방장이 주방으로 물러나는 장면과 다른 사람들이 술잔을 든 뒤에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장남 천일룡의 모습을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은 천금석씨가 괴로운 표정을 하다가 얼굴을 식탁에 처박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테이프는 사람들이 식탁에서 일어나고 일부 의자들이 뒤로 나뉘는 장면에서 끝났다.

“두가지 질문이 있소.” 하고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한가지는 천씨집안에서는 오늘 밤처럼 자기들의 일을 언제나 비디오테이프로 촬영했던가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룡씨는 언제나 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에 대해 형제들은 귀찮게 생각했지만 부친인 천금석씨는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유경감은 말했다.

“두번째는 주방장도 천금석씨의 첫번째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나요?”

유경감은 “네, 주방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살인사건이 어떻게 저질러진 것인지 알겠소.” 최교수는 말했다.

“아니, 주방장이 천금석씨를 살해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유경감은 물었다. “그렇다고 말한 것은 아니요.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시오. 천금석씨가 어떻게 살해되었고 누가 그것을 했는가 보여드릴테니까.” 라고 말하는 최교수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최교수가 잡은 증거는 무엇이었으며 천금석씨 살해범은 누구였을까?

〈春堂人〉

미스터리 해답은 98쪽 참조